



이름:

WEEK 11

Mar 10

레위기 27장

본장은 서원에 관해 다룹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2-8절), 가축을 서원(9-13절), 집과 토지(14-25절)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서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과 서원을 했다면 꼭 시행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 제사(1장)로 시작하였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순종, 자발적인 섬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도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어지는 것. 우리도 이런 자유로운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민수기 1장

출애굽한지 2년째 되던 해의 2월 1일,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이었나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명이었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약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00년전 70명의 사람들이 250만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항상 이동을 해야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져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Mar 11

민수기 2장

본장은 광야에서의 행군과 전쟁을 위한 질서와 자리 배치를 기록합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나요?
(이렇게 진을 친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생활의 중심,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본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은 레위인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 예배를 시종하도록 구별되었고(6-9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속하는 존재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12절). 계속해서 레위자손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었는데, 레위자손은 몇 개월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었나요?
*비록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4:3), 한 달 이상의 남자가 계수되었다는 것은, 레위인은 군사적 기능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Mar 12

민수기 4장

본장에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세 가족(고핫, 므라리, 게르손)으로 분류하여 성막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래 각각의 임무를 누가 책임졌는지 찾아 써 보세요.
1) 성막안의 지성물(4-20절):
2) 성막의 휘장과 덮개(21-28절):
3) 널판, 띠, 기둥, 받침과 도구들, 뜰 사면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29-33절):
*하나님께서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일들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나의 섬김은 어떠한가요?

민수기 5장

본장은 시내산 광야에서 가나안 행군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결과 거룩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Mar13

민수기 6장

본장은 나실인의 서약(1-21)에 이어 아론(제사장)의 축복기도가 이어집니다. 왜 축복기도가 나실인 서약에 관한 본문에 이어서 기록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을 넣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민수기 7장

본장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 및 지파의 지휘들, 감독들이 헌물을 드리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모든 지파들의 헌물은 같은 종류, 같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외 이하 모두 같음"이라고 쓰지 않고, 12지파의 헌물을 각각 자세하게 따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Mar14

민수기 8장

본장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내용인데, 먼저 성막의 등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1-4절). 아론은 등불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켜야 했습니다. 등잔대 앞에는 진설병 상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대상은 바로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요, 내 길에 ()이니이다. (시편 119:105)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과 같으니(벧후 1:19)

민수기 9장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1-14절). 이어서 15-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를 행진해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을 쳐서 머물렀다가 또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따라 움직였나요? 이 구절에는 이 단어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광야 교회의 행진 패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자신의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언제라도 일어설 수 있고, 언제까지라도 조급함을 품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Mar15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의 1년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날은 제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뒤의 삶에 대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약 250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앞줄과 뒷줄의 거리가 약 21km),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길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궤가 떠날 때와 궤가 쉴 때 어떻게 기도하였나요?(35-36절)

1) 궤가 떠날 때:
2) 궤가 쉴 때:

*우리의 실상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운전을 시작하고 마칠 때, 모임을 시작하고 마칠 때, 이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민수기 11장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내광야에서 바란광야까지 3일 동안 걸어온 길의 피곤함 때문이었는지, 얼마 못 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라 여호와와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 순간순간 저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말과 원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먼저 생각나도록 축복해 주세요.